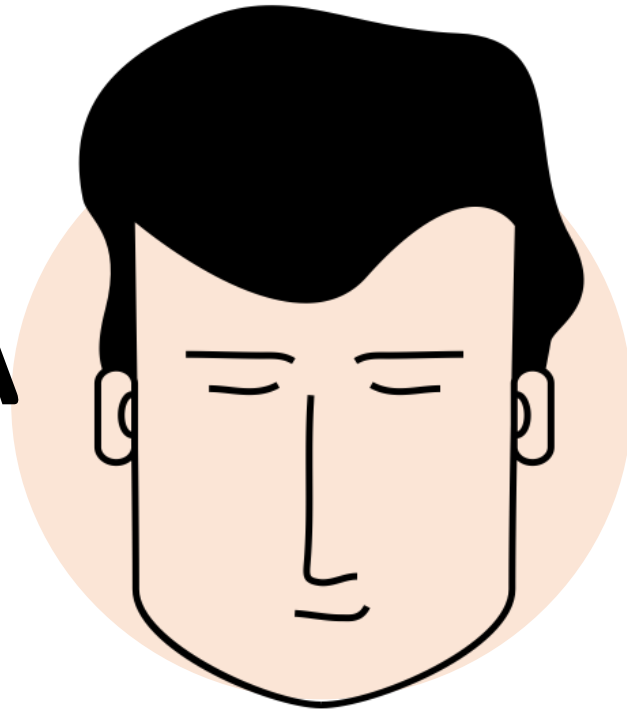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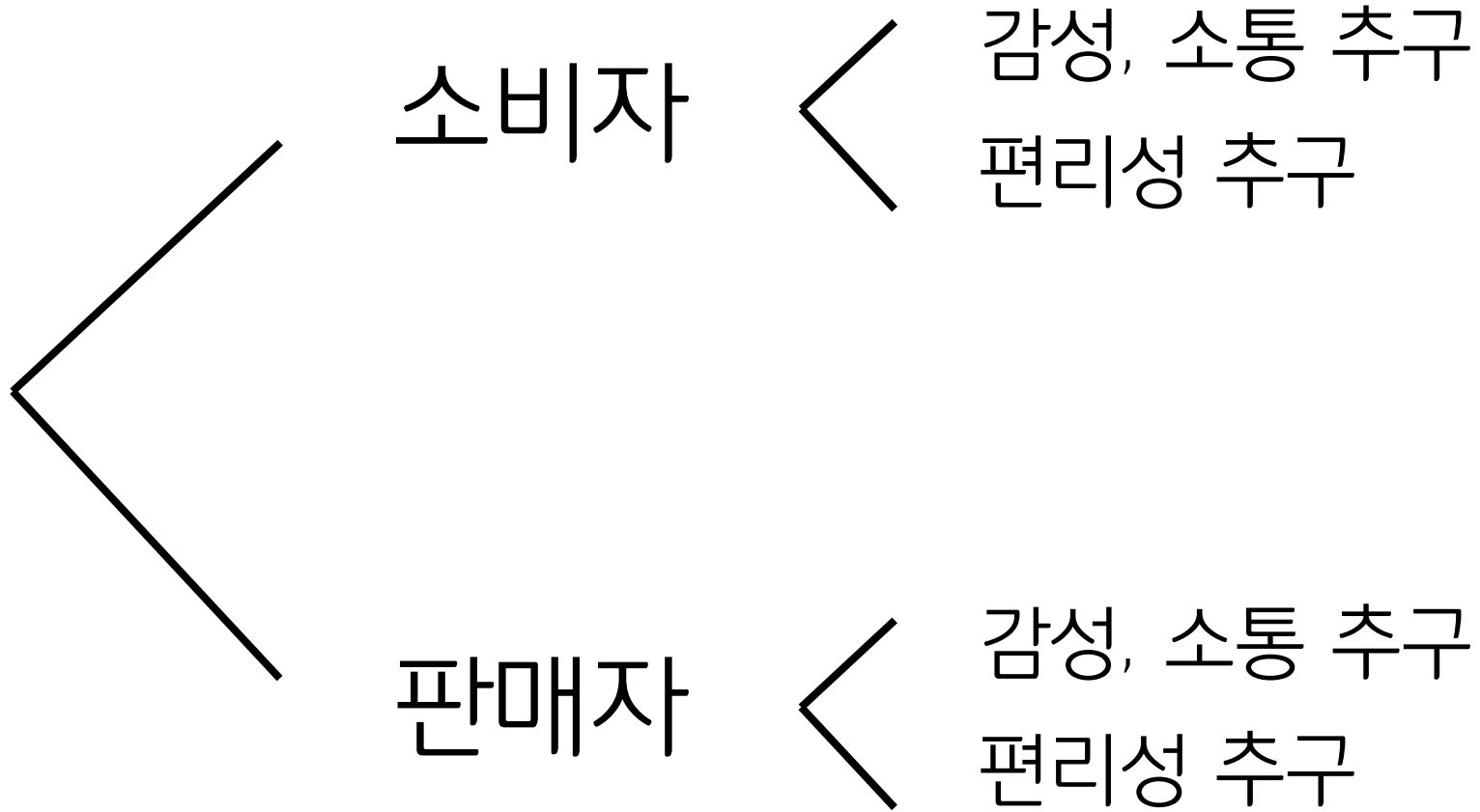
구동완 김지수 김효준 백서영 최정인

Creating PERSONA

: stages 1 through 9



STEP 1 Divide interviewees by Role, if appropriate



STEP 2 Identify behavioral & demographic variable

가격과 품질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 음식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개방성

개방적인 사람[신뢰성에 관대] ←-----> 낮은 가리는 사람[신뢰성 중요]

시간적 여유

'약속'을 잡기에 free한 사람 ←----->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바쁜 직장인의 경우]

소통

PARTY People←-----> RAPPORT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경우] [외로워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경우]

식사의 중요성

식사를 중요시 하는 사람 ←-----> 식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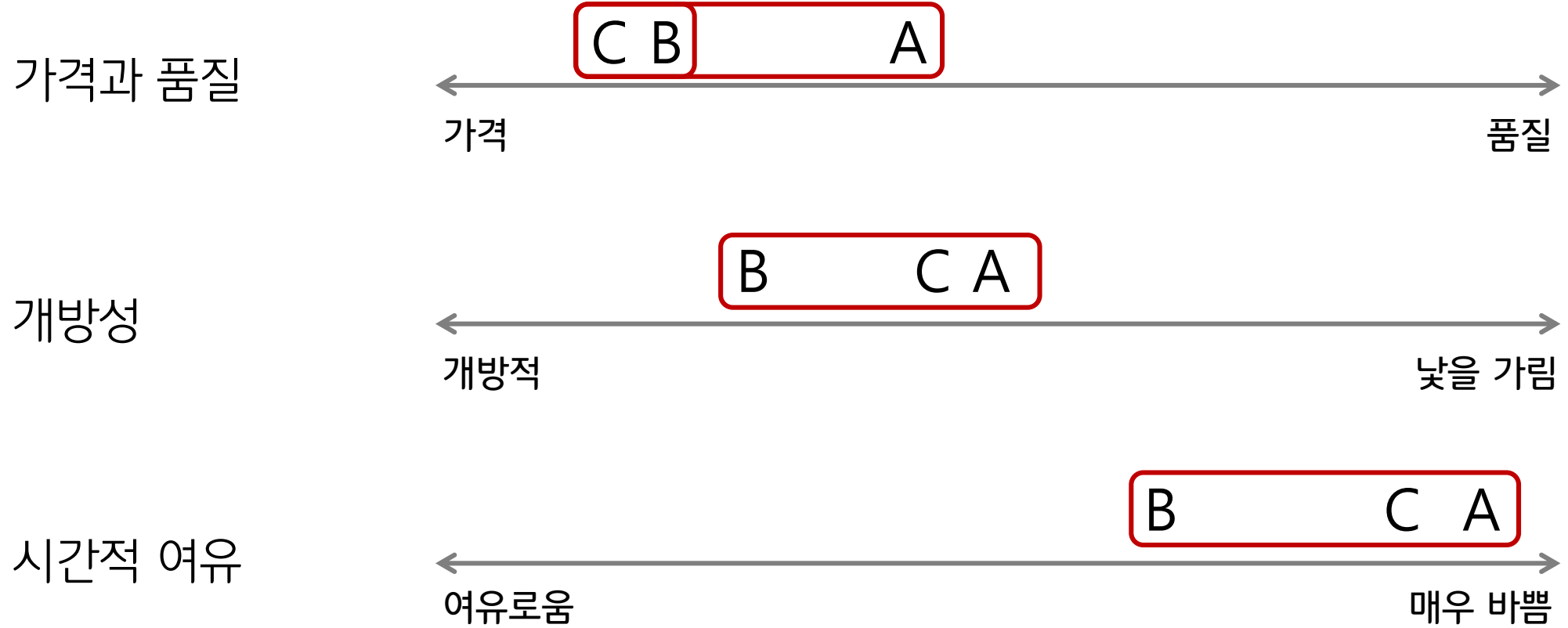
메뉴의 중요성

메뉴 선택에 주관이 뚜렷한 사람 ←-----> 메뉴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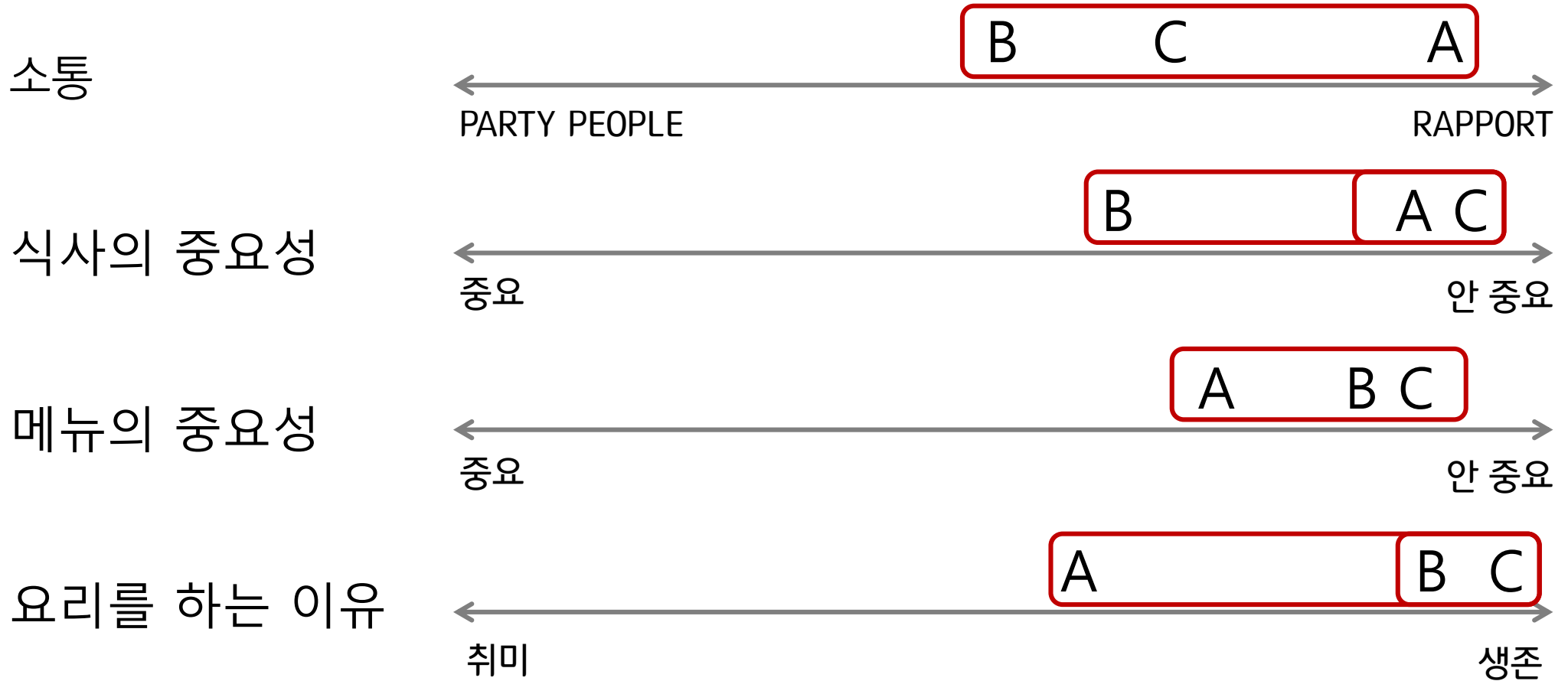
요리를 하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 ←----->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이 좋아서

STEP 3~4 Map interviewees to Variables/Identify Patterns



STEP 3~4 Map interviewees to Variables/Identify Patterns





소비자:
감성, 소통 추구

PRIMARY

- 집에서 먹는 밥의 느낌을 받는다.
- 혼자 밥을 먹지 않는다
- 식사를 하며 새로운 관계 -다이닝메이트를 찾는다



소비자:
편리성 추구

PRIMARY

- 식당보다) 집에서 가까운 가정집에서 식사한다
- 나와 비슷한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가정집을 찾아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식사한다
- 식당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고 싶다
- 안전한 거래를 하고 싶다



판매자:
감성, 소통 추구

SECONDARY

- 내가 한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다 (대접의 의미)
- 혼자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싶지 않다
- 식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 다이닝 메이트를 찾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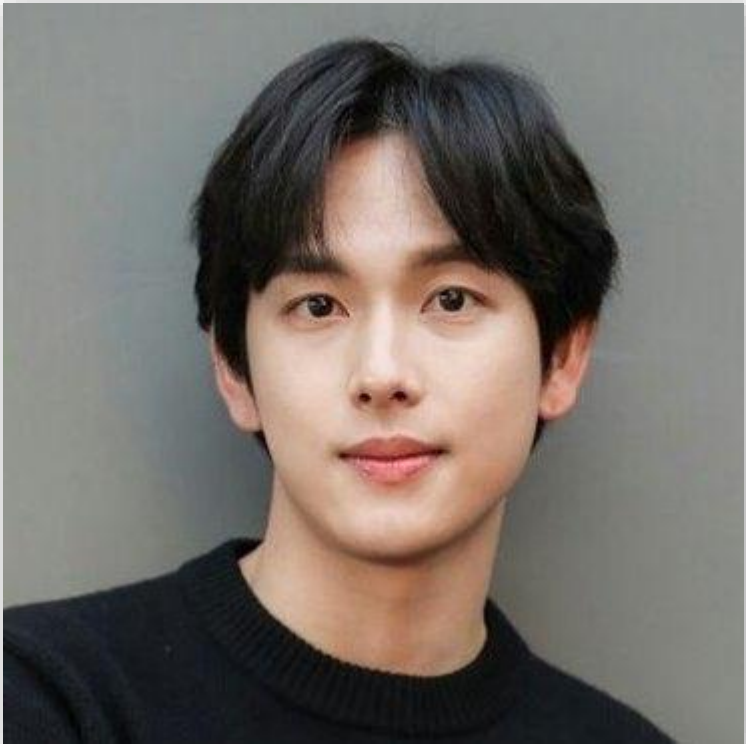


판매자:
편리성 추구

SECONDARY

- 안전한 거래를 하고싶다
- 음식을 남겨 버리는 것보다, 함께 나누어 먹고 싶다
- 수입을 얻고 싶다.

STEP 6 (7,8) Clarify Distinctions and Add Detail



Primary PERSONA

- 최동준 27세, 대학생, 1인 가구
- 가족 구성원: 부모님과 동생은 대구에 거주
- 거주지: 건국대학교 근처 원룸
- 취미: 축구
- 처한 상황: 자취를 시작 하고 시간,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고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갖고있음.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며 외로움을 느낌.
- 성격: 현실적, 검소함
- 음식 선호 특징: 한식 선호

STEP 6 (7,8) Clarify Distinctions and Add Detail



Primary PERSONA

- 김지영 28세, 프리랜서 작가 겸 번역가, 1인 가구
- 가족 구성원: 부모님은 안산 거주
- 거주지: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 취미: 여행, 여행 책 읽기, 블로그 운영
- 처한 상황: 요리하는 것은 흥미가 없어서 주로 외식을 함. 혼자 먹는 것을 싫어해서 친구와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항상 약속을 잡을 수는 없기에 자주 혼밥을 하게 된다
- 성격: 사교적, 개방적
- 음식 선호 특징: 저 탄수 고단백의 다이어트식 선호

STEP 6 (7,8) Clarify Distinctions and Add Detail



Secondary PERSONA

- 김현숙 57세, 가정주부, 아파트 주민 대표
- 가족구성원: 배우자(54,회사원),아들(29,직장인), 딸(25,대학생), 고양이(2,애완동물)
- 거주지: 서울시 광진구의 한 아파트
- 취미: 식물 가꾸기
- 특기: 요리, 특히 소고기무국을 잘 함
- 한식 자격증 도전 중
- 처한 상황: 2년 전, 중학교 교사 직을 퇴직 후 적적하여 취미 개발에 매진 중. 요리를 해도 가족들이 바빠 잘 먹어 주지 않는다.
- 성격: 개방적이고 활동적.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높음. 돕고 싶어 함.

STEP 6 (7,8) Clarify Distinctions and Add Detail



Secondary PERSONA

- 박서희 31세, 은행원, 1인 가구
- 가족 구성원: 본집은 안산
- 거주지: 이태원 빌라
- 취미: 꽃꽂이
- 처한 상황: 자취한 지 꽤 되어 요리도 곧잘 한다. 은행 일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 절약도 할 겸 아침이나 점심한끼정도는 도시락을 싸다니는데 항상 재료가 남아 고민이다.
- 성격: 낮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재미있는 스타일

FINAL PERSONA



최동준 (27세)

가족은 지방에 살고 고등학교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하여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였다. 신입생때는 부모님의 무언의 압박도 있었고 비싼 사립대 등록금이 부담되어 기숙사에 거주했었다.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단체생활에 질린 나머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생활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취 생활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자취가 처음이다보니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안일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이 기숙사에 거주할 때에 비해 확연히 증가했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특히 매끼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배가 덜 고프면서 효율적으로 매 끼니를 해결할지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레 아침은 당연히 거르는 것이 되어버렸고, 점심 저녁도 가능하면 학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군필에 취준도 코앞이고 학점 전쟁, 그리고 매일마다 쌓여가는 집안일, 친구 관계는 최동준 나를 더 우울하게 하고 외롭게 만든다. 가끔 음식하는게 귀찮아서 밥을 사먹으러 나가면 혼밥하기에 마땅한 식당도 그리 많지 않고, 설사 용기내어 혼밥을 하더라도 주변에 외식나온 다른 가족들을 보면 괜시리 나 자신이 애처로워진다. 누구는 여행을 다니며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다니고, '먹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살기위해 먹는 것이며, 어떻게 든 요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검소한 성격을 갖게 되었고 예전에 비해 좋아하는 메뉴의 다양성도 많이 좁혀졌다. 그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가족들과 도란도란 먹는 한식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끼니 해결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감사합니다.